“베트남, 일본, 영국 등 글로벌 시장 장악력 높이겠다”

바노바기 코스메틱

20년 전통 바노바기 성형외과의 화장품 브랜드 바노바기 코스메틱이 ‘K-더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피부과, 에스테틱, 쁘띠클리닉, 모발이식센터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메디컬 그룹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함께 피부건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화장품과 피부과학을 결합한 ‘더마코스메틱(Dermocosmetic)’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5년 설립 당시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시장 장악력에 있다.

바노바기는 2018년 태국 왓슨스 전 매장(550개)에 마스크팩을 론칭했으며, 밀크씨슬 리페어 라인은 현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

또한 바노바기의 ‘비타 제닉 젤리마스크(이하 젤리마스크)’는 2018년 6월 출시 후 4년 만에 3,000만장 이상 판매됐다.

20년 전통 성형외과 기반 K-더마 신역사 개척
태국과 베트남에서 젤리마스크팩 인기 계속
지난해 고성장 이어 올해 1분기도 30% 이상↑
활발한 마케팅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총력
현지 피부 고민 해결 위한 다양한 라인업 추진
올해는 국내 사업 유통망 확보에도 집중 예정
반재용 대표, “신뢰 할 수 있는 K-더마 목표”

이런 가운데 바노바기는 한국형 더마 코스메틱을 뜻하는 ‘K-더마’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외 화장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노바기는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꾸준한 매출 신장을 기록 중이다.

현재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기록 중인 바노바기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50%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의 매출을 경신했다.

태국 왓슨스에서 선정하는 Health Wellness and Beauty Awards 2022(이하 HWB Awards 2022)에도 3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HWB Awards 2022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뷰티 브랜드를 모아 각 분야 1위 품목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현재 바노바기 젤리마스크는 약 600여개의 왓슨스 매장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뷰티 편집숍 EVEANDBOY와 POMELO, 태국 최대 이미용 숍인 Konvy와 BeautiCOOL, Multi Beauty, SHOPat24, koriico 등 태국 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돼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7가지 젤리마스크의 비타민 함량과 시트의 중량을 높이고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

또한, Hang Over와 White Gloss, Wake Up& Cooling 등 새로운 컨셉의 뉴 젤리마스크 3종을 추가로 출시해 총 10가지의 젤리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바노바기는 동남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마스크팩을 비롯해 스킨케어까지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슬리핑마스크 등 제품 라인업을 늘려간다는 전략이다.

마케팅도 강화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확대하고, 태국은 TV CM, PPL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진출한 일본 온라인에서 좋은 성과가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진출을 추진 중이며 영국,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권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지역까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시장 안착에도 집중한다.

이미 바노바기는 신라인터넷면세점을 비롯해 롯데인터넷면세점, 신라아이파크인터넷면세점 등을 넘어 오프라인 면세점에 진출하는 등 면세 채널을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 온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다.

바노바기 반재용 공동대표는 “바노바기의 경쟁력은 신의에 있다”면서 “동료와 직원은 물론, 파트너사, 나아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이며 회사 설립 이후 바노바기는 신의를 경영 방침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노바기의 전 제품은 출시 전 모두 피부자극테스트를 완료해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현지 유통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바노바기는 앞으로도 한국 피부과전문의가 바르게 만들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더마의 기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과의 신의를 지켜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지홍 기자 jh9610434@meconomynews.com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 찾는 제품 개발 주력”

에스엠하엘

펩타이드 신소재 개발에 집중해 왔던 에스엠하엘이 화장품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준 교수의 특허 등록 기술을 이전 받아 혁신적인 화장품을 개발하고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에스엠하엘은 김준 교수가 개발한 ‘인간 리보솜 단백질 S3의 DNA 손상 복구 및 피부 손상 복구 효능을 가진 도메인의 펩타이드 서열을 포함하는 조성물’(특허 등록 10-2206-2310000)을 기반으로 천연물질 RPS.3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 앰플을 출시했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시그니처 베이스 앰플에 피부 고민에 따라 바이알 앰플을 선택해 그날그날 피부에 맞게 레이어링해 사용하면 된다.

3가지 모두 레이어링이 가능하고 베이스 앰플의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 에스엠하엘의 앰플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김준 교수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과 자극을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를 가꾸기 위해 피부과 등을 찾고 있지만 니들, 시술, MTS 제품들은 피부 침투시 자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에스엠하엘이 개발한 화장품에 적용된 RPS.3 물질은 미생물에서 얻은 천연물질로 자극이 없다.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최근 인천 지식산업센터 ‘아르테크 주안’에 입주한 에스엠하엘은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며, 5월 말에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에스엠하엘은 피부 부위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킨 헬스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맞춤형 피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 제품도 개발한다.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레이어링 통해 보습, 미백, 주름 피부 고민 해결
천연물질 RPS.3 적용… HA:L RPS.3 앰플 개발
미생물에서 얻은 천연물질, 피부와 같은 소수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준 교수 특허 기술 이전
와디즈 펀딩, 빅데이터 통한 플랫폼 개발 등 준비
원료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토털 화장품 목표

RPS.3은 미생물 또는 인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성물로 독성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부처럼 소수성(물과 친하지 않은 속성)을 띄고 있어 별다른 관리 도구 없이 피부 침투가 가능하다. 에스엠하엘은 성분의 효과를 적극 활용해 ‘HA:L RPS.3 앰플’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품은 ‘시그니처 베이스 앰플’과 3가지의 기능성 바이알 앰플로 구성된다. 바이알 앰플은 그린시카(보습), 화이트닝.H(미백), 카밍레드(주름 개선) 등의 기능을 지닌 라인업을 구축했다. 시그니처 베이스 앰플에는 천연물질 RPS.3가 함유돼 피부 침투력을 높였다.

에스엠하엘은 제품 생산 전에 이미 1년여 간 샘플을 생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테스트를 끝냈다. 이어 최근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임상을 진행, 자료가 완료되면 와디즈 펀딩에 론칭할 예정이다.

수출 진행을 위해 대한화장품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중국 인허가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들어갔다.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와디즈 펀딩 론칭 이후 브랜드와 제품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광고를 강화하고, 다양한 바이럴 영상을 제작해 에스테틱숍 등에도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에스엠하엘은 화장품 신소재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제품 개발과 직접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출원한 동결건조 특허 기술까지 접목한 새로운 제품도 준비 중이다. 에스엠하엘 관계자는 “HA:L RPS.3 앰플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집중했다”면서 “고려대학교 김준 교수가 보유한 다양한 원천 기술과 신소재를 바탕으로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는 원천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스엠하엘은 앞으로 기능성 제품과 화장품 원료는 물론, 향후 바이오의약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할 계획”이라면서 “보유 중인 특허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해 자사만의 브랜딩을 확실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홍 기자